

# 한국경제 'マイ너스 성장' 현실화 되나

KDI 등 예측기관 내년 1분기 성장을 전망

수출·내수 '꽁꽁'... 실업대란·기업 줄도산 우려

금리인하·재정지출 확대 등 대책 조속 이뤄져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예측기관들이 올해 4·4분기나 내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기준으로マイ너스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マイ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수출·내수·투자 모두 끝없는 추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소비·투자·수출 모두 암울 = 수출은 세계 경제둔화와 함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도 내년 수출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한 상태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실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우리 수출의 둔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전체 기여도가 가장 큰 소비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자산가치 폭락으로

과 수익이 줄어들고 고용 불안이 심화해 실업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기업 도산사태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서민들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재정지출 확대 등 대책 서둘러라" = 이를 극복하려면 경제주체 모두 협력과 협조를 통해 결국 정부가 나서서 대체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유병구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당장 국회에 둑어있는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내년 초반 이후 이 돈이 풀리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된다"고 경고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마이너스 드는 저성장이든 금리를 낮추고 재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취약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그를 전제로 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 제조업 경기전망

### 환란이후 최저치 급락

광주상의 지역업체 150곳 내년 1분기 BSI 조사

韓銀지역본부도 '부진' 예상

광주의 내년 1·4분기 경기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26일 150개 회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BSI를 통한 2009년 1·4분기 경기전망을 한 결과 지수가 '60'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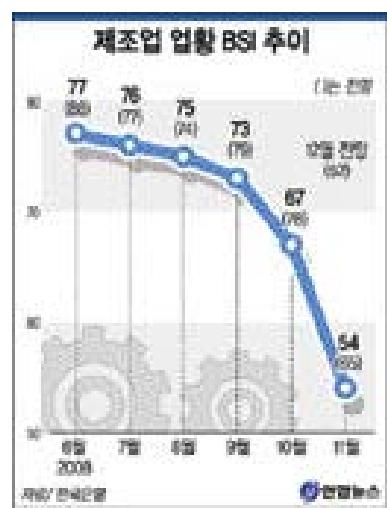
BSI는 100을 기준으로 해 상회 시 '호전', 밀물 경우 '악화'로 해석되는데 지수 '60'은 1998년(3·4분기에 63 기록)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업종별 BSI를 보면 비금속광물이 27로 가장 낮았고 섬유·의복(33), 인쇄·출판(50), 1차금속, 조립금속(57), 음식료품(57), 자동차·운수(60), 전기·전자(67), 기계(82) 등 전업종이 100을 밀쳤다.

세부항목별 BSI도 제품판매가격(95), 수출(87), 설비투자(84), 제품재고(84), 내수(71), 경상이익(54), 자금사정(51) 등 비관적이었고 기업규모로 대기업(50), 중소기업(61) 전망 역시 같았다.

1·4분기 기업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가 상승(37.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금난(35.4%)', '환율변동(16.2%)', '금리인상(5.1%)', '임금인상(3.0%)', '노사문제(1.0%)' 등의 순이었다.

BSI 조사 결과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이날 발표한 다음 달 광주전남 업황전망 BSI도 '부진'으로 조사돼 지역경기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한은 측의 조사결과 제조업은 BSI가 전달 56에서 43으로, 비제조업도 62에서 58로 모두 하락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최근 2천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조업의 11월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54로 전월의 67보다 13포인트 높았지만 1998년 3분기(4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jlee@kwangju.co.kr

/정필수기자bungy@kwangju.co.kr

## 10대 기업 투자 기피 심화

3분기 유보율 급증... '쌓아둔 돈' 자본금의 8배 유탁

현대중공업 1,657% 최고

경기 침체로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기 보다는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 그룹의 잉여금 규모가 자본금의 8배에 유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0대 그룹 계열사 64곳의 유보율은 3분기말 787.13%로 작년말보다 67.07%포인트 증가하면서 나머지 495개 기업의 625.72%를 크게 웃돌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이 1,657.61%로 가장 높았고 삼성(1,614.04%)과 SK(1,280.19%)가 뒤를 이었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유보율은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나 많으나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높은 유보율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자금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투자 등 생산 부문으로 돈이 흘러 가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의 유보율은 696.26%로 작년말보다 37.94%포인트 늘었다.

총 잉여금은 393조4천613억원으로 7.11% 늘었지만 자본금은 56조5천103억 원으로 1.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별기업으로는 태광산업이 27.666.39%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SK텔레콤(27.110.20%), 롯데제과(20.534.52%) 순이었다.

유보율이 2,000% 이상인 회사는 54개사로 작년말보다 11개사가 늘었고 100% 미만인 회사는 64개사로 2개사가 줄었다.

/연합뉴스

## 근로자 실질임금 7년만에 'マイ너스'

노동부 7천여 사업체 조사

(247만3천원)보다 2.7% 낮아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상용근로자만 놓고 보면 올해 3분기 실질임금은 지난해 3분기보다 2.4% 떨어진 255만8천원으로 2001년 3분기(-0.1%)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의 하락폭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4분기 -6.0% 이후 이번이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경동택배	광주 서구 운전기사(60명)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5	011-646-4280
ING생명[본사]	광주 본사직영 풀센터 공체 상담원(자체설립 상품(재테크))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27	02-3452-2612
국제컴퓨터학원	OA / 컴활 / 그래픽 / 웹디자인 강의(국제 전대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8	062-266-6617
조은소프트웨어(주)	전기 전자제품 조립 설치 겸사 유지보수	고졸/경력1년	1400~1600	11/28	062-941-0377
서광미디어(주)	사무보조 및 전산관리 어려운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30	062-226-9900
㈜플로리아	캐서/홀씨팅/마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572-1200
㈜서림인더스트리	신양파크호텔 휴트니스 프론트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228-8000
㈜서평	[광주]파리비게트 제빵제조기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02	042-626-9194
㈜시아이몰	TM 및 사무보조, 접수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02	062-529-0909
뽀속이	여성의류 소핑몰 배송 및 물류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2	062-224-2282
㈜오이솔루션	Firmware 엔지니어 대출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4	062-602-7653
디자인블루아이	사무보조 및 회계관리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05	062-228-3658
토류건설(주)	토목기사/건축기사 정규직	초대졸/경력3년	3000~3200	12/05	062-511-7900

상용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기업 유동성·구조조정 전담

### 정부 기구 28일 출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민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에 운영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2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금감원이 이달 12일 설립한 기업금융개선지원단에 국장급을 포함한 금융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총괄반이 결합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은행, 해당 기업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팀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원단의 단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겸임하고 실무조직은 1반(총괄반), 2실(기업금융 1, 2실), 7팀으로 구성되며 단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원단에 국장급 1인, 과장급 1인, 사무관 2인을 파견해 총괄 및 조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8 서울국제농업기계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채소심는 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브랜드 가치' 1조1천억弗

세계 주요 40개국 중 10위

삼성전자 11조6천억 최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전략활동 평가, 한국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 평가를 비교한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교적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은 반면 유럽지역에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브랜드 가치평가에서는 '한국(Korea)'의 가치가 1조1천억 달러로 세계 주요 40개국 가운데 10위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11조6천억 원으로 9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선정됐다.

연구원은 은행과 보험,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포털 등의 분야에서 기업 브랜드에 평가자료를 발표했다. 각 부문 1위는 국민은행(3조원), 삼성생명(4조4천억원), 롯데백화점(1조2천억원), 이마트(1조5천억원), 네이버(2천억원) 등이 차지했다.

이율리 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100개 분야의 '슈퍼 브랜드'를 시상하는 '브랜드 올림픽'도 열었다.

전국 20~60대 소비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선정된 부문별 '슈